

## 다문화 청소년의 성취동기가 진로결정성에 미치는 영향 : 사회적 위축과 우울의 순차적 매개효과

박동진<sup>1</sup>, 김송미<sup>2\*</sup>

<sup>1</sup>한영대학교 사회복지과 조교수, <sup>2</sup>명지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 전임연구원

### The Effects of Achievement Motivation on Career Decision of Multicultural Adolescents: Sequential Mediating Effects of Social Withdrawal and Depression

Dong-Jin Park<sup>1</sup>, Song-Mi Kim<sup>2\*</sup>

<sup>1</sup>Assistant Professor, Dept. of Social Welfare, Hanyeong University

<sup>2</sup>Researcher, Institutional Review Board, Myongji University

**요약**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 청소년의 성취동기와 진로결정성의 관계에서 사회적 위축과 우울의 순차적 매개효과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제공하는 '다문화청소년패널조사' 8차년도 조사(2018)의 청소년 데이터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성취동기는 진로결정성에 유의한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성취동기와 진로결정성의 관계를 사회적 위축이 매개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성취동기와 진로결정성의 관계를 우울이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성취동기와 진로결정성의 관계를 사회적 위축과 우울이 순차적으로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하여 다문화 청소년의 진로결정성을 향상시키고, 진로를 지원하기 위한 사회적 지원방안에 대해 모색하였으며, 본 연구결과와 함의와 한계점, 후속연구에 대한 제언을 제시하였다.

**주제어** : 다문화 청소년, 성취동기, 진로결정성, 사회적 위축, 우울, 순차적 매개효과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sequential mediating effects of social withdrawal and depression in the relationship between achievement motivation and career decision of multicultural adolescents. To this end, we analyzed adolescents data from the 8th year survey(2018) of the 'Multicultural Adolescent Panel Study(MAPS)' provided by the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NYPI). As a result of the study, first, achievement motivation was found to have a significant and positive effect on career decision. Second, it was found that social withdrawal did not mediate the relationship between achievement motivation and career decision. Third, it was found that depression mediates the relationship between achievement motivation and career decision. Fourth, it was found that social withdrawal and depression sequentially mediate the relationship between achievement motivation and career decision.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we searched for social support measures to improve the career decision of multicultural adolescents and support their career paths, and suggested implications and limitations of the results of this study and suggestions for follow-up studies.

**Key Words** : Multicultural Adolescent, Achievement Motivation, Career Decision, Social Withdrawal, Depression, Sequential Mediating Effect

\*Corresponding Author : Song-Mi Kim(matumism0730@gmail.com)

Received June 11, 2021

Revised July 1, 2021

Accepted August 20, 2021

Published August 28, 2021

## 1. 서론

청소년의 진로결정은 당장 특정한 직업을 선택하고 현장에 나가기 위해 다루어져야 하는 문제라기보다는, 자신의 적성과 흥미를 적절히 탐색한 결과이자 진로의 방향을 선택하고 이를 바탕으로 진로를 준비하는 활동을 하기 위한 지표로서 다루어져야 하는 문제라고 할 수 있다[1]. 그러므로 청소년기에 청소년 자신이 흥미와 적성에 맞는 진로를 결정할 수 있도록 적절히 지원하는 것은 한 개인의 인생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사회적 차원에서 필히 다루어져야 하는 매우 중요한 사회문제라고 할 수 있다[2]. 한 개인의 진로문제는 전 생애에 걸친 다양하고 복잡한 경험에 기반한 것이라 말할 수 있다. 개인은 생애에서 성장, 탐색, 확립, 유지, 쇠퇴라는 시간적 측면에서의 변화를 경험하며 가정, 학교, 사회에서 그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며 삶을 영위해나가고 있다[3]. 전 생애 중에 특히 청소년기는 진로발달에서 자신을 이해하고 직업세계에 대해 충분히 탐색해야 하는 성장과정에 있으며, 구체적으로 진로에 있어서의 다양한 영역을 탐색하고 집중적으로 역량을 강화하며, 적절한 진로결정을 준비하는 탐색과정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4]. 이러한 성장과정과 탐색과정을 통해 청소년들은 성인기 이후의 진로를 준비하며, 이행해나가는 기본적인 역량을 갖추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청소년기는 진로를 탐색하고 준비하며, 결정하는데 매우 중요한 시기라고 말할 수 있으며, 이 때 적극적으로 진로지원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다문화 청소년들의 경우에는 두 문화가 공존하는 이중문화를 경험하면서 문화적응을 해나가고 있으며, 문화적응에 대한 어려움과 함께 특히 진로를 준비하고 결정하는 것에 또래들에 비해 많은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5]. 「청소년복지지원법」 제18조에 따르면[6], 다문화 청소년은 국제결혼가정, 외국인의 자녀와 그 밖에 부모 혹은 본인이 국내로 이주하여 사회적응 및 학습수행 등에 지원이 필요한 9세에서 24세 이하의 연령에 속하는 자라 정의하고 있다. 다문화 청소년은 일상에서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경험하는 이중문화 사이에서 문화간 충돌을 경험하기도 하면서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경험하며, 이로 인해 자아정체감의 혼란을 경험하기도 하며 삶에서의 희망과 목적의식 등이 약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7,8]. 이는 다문화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적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이들을 위한 지원이 시급하다

는 것을 시사한다. 특히 다문화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부적응은 진로결정에 대해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침을 예측하게 한다. 청소년의 진로발달에 있어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인들에는 도전의식, 모험심, 책임감 등을 포함하는 성취동기가 있다[9]. 이 때 다문화 청소년이 가진 성취동기는 진로를 결정하는 데 있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성취동기는 자신이 노력을 하여 가치있는 과업을 수행하고자 하거나 중요한 과업을 통해 우수한 성취를 이루고자 하는 동기를 의미한다[10].

Busato et al[11]에 의하면 성취동기가 진로결정수준 등 진로 관련 변인에 대한 중요한 예측변인으로 나타났다. 박동진과 김송미[12]에서는 다문화 청소년의 성취동기가 높을수록 진로결정성도 높아지는 것으로 밝혀진 바 있으며, 전해숙, 김진영, 전종설[13]에서도 성취동기가 높은 다문화 청소년들은 진로결정을 비교적 원만히 수행하는 것으로 확인되어 성취동기가 진로결정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임이 실증적으로 확인된 바 있다.

이러한 성취동기는 다문화 청소년이 지각하는 사회적 위축과 유의미한 관계인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 사회적 위축은 다른 이들과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데 긴장하거나 주눅들고 회피하려고 하는 모습을 나타내는 것을 의미한다[14]. 사회적 위축은 실제 연구에서 다문화 청소년의 성취동기와 부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5,16]. 다문화 청소년이 갖는 성취동기가 높을 때, 이들이 경험하고 있는 사회적 위축이 낮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다문화 청소년이 우수한 성취를 이루고자 하는 동기를 높은 수준으로 갖고 있을수록 타인과의 관계에서 위축되거나, 이 관계를 회피하려고 하는 사회적 위축이 낮음을 의미한다.

다문화 청소년은 사회적으로 위축될수록 진로결정을 하는 데 부정적인데, 이들이 비다문화청소년에 비해 진로를 결정하지 못하거나 유예하는 경향을 보인다는 점에서[17,18], 다문화 청소년의 성취동기가 높으면 사회적 위축이 낮고, 사회적 위축이 낮으면, 진로결정성이 높다는 경로를 추론해볼 수 있다. 그러므로 다문화 청소년의 진로결정성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실제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진로결정성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추론되는 성취동기와 사회적 위축의 영향력과 이들 관계에서 영향을 미치는 경로를 실증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한편, 성취동기는 우울과도 유의미한 상관

관계를 갖고 있으며, 특히 이 둘은 유의미한 부적인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16]. 다문화 청소년이 어떠한 과업을 성취하고자 하는 동기가 높을 때 우울을 낮게 경험하는 것이다. 이에 더해 전해숙, 김지영, 전종설[13]은 다문화 청소년이 우울할수록 진로를 결정하는 것에 대해 어려워하는 것으로 밝힌 바가 있는데, 이를 볼 때 다문화 청소년의 성취동기가 높을 때 우울이 낮고, 우울이 낮을 때, 진로결정성이 보다 높다는 경로를 추론해 볼 수 있다. 성취동기와 진로결정성 사이에서 유의미한 영향력을 갖는 사회적 위축과 우울은 이 두 변인 간에도 유의미한 관계를 갖고 있음이 밝혀진 바 있다[19-21]. 청소년들이 경험하는 사회적 위축이 높은 경우에 우울도 높은 것으로 보고된 바 있으며[19], 특히 흥나미와 박현정[20]과 조성희와 박소영[21]는 다문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이들의 사회적 위축에 우울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한 바 있다. 다문화 청소년이 사회적으로 위축되는 수준이 높을수록 우울이 높은 것이다.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문화 청소년의 성취동기, 사회적 위축, 우울이 진로결정성에 유의한 관계를 갖고 있는 가운데, 이들 변인 간에 순차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경로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성취동기가 진로결정성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 사회적 위축과 우울이 이들 관계를 매개하는 것으로 추론해볼 수 있다. 상기의 내용들을 살펴보면, 다문화 청소년의 성취동기, 사회적 위축, 우울, 진로결정성 간의 관계에 대해 추론해볼 수 있다. 그렇게 이들 변인들 간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밝히고 있는 연구를 쉽게 찾아볼 수 없어 다문화 청소년의 진로결정성에 대해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 간의 관계를 이해하고, 이를 근거로 대책을 찾고 마련하는 데 다소 한계가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이들 변인들 간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검증하여 밝히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 청소년의 성취동기가 사회적 위축과 우울을 거쳐 진로결정성에 영향을 미치는 연구모형을 설정하고, 이를 실증적으로 검증하고자 한다. 또한 사회적 위축과 우울이 각각 성취동기와 진로결정성을 매개하는 경로도 설정하였다. 다시 말해 성취동기가 진로결정성에 영향을 미치는 데 있어 사회적 위축과 우울 각각의 단순매개효과를 살펴볼 뿐 아니라 사회적 위축과 우울의 순차적인 이중매개효과를 검증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에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

째, 다문화 청소년의 성취동기는 진로결정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가?, 둘째, 다문화 청소년의 성취동기와 진로결정성의 관계를 사회적 위축이 매개하는가?, 셋째, 다문화 청소년의 성취동기와 진로결정성의 관계를 우울이 매개하는가?, 넷째, 다문화 청소년의 성취동기와 진로결정성의 관계에서 사회적 위축과 우울이 순차적으로 매개하는가? 또한 연구모형은 Fig. 1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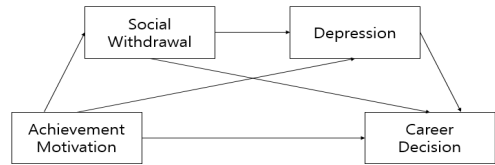


Fig. 1. Research Model

## 2. 연구방법

### 2.1 연구대상

본 연구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제공하는 ‘다문화 청소년패널조사(Multi-cultural Adolescent Panel Study: MAPS)’ 8차년도 조사(2018)에 참여한 청소년들의 데이터를 활용하였다. 이 패널조사에서는 국제결혼가정의 자녀, 외국인의 자녀들, 중도입국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표집하였으나, 결과적으로 국제결혼가정의 자녀가 조사참여자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22]. 본 연구에서 활용한 8차년도 조사(2018)에 참여한 청소년의 데이터는 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하고 있는 청소년들을 주 대상으로 조사한 것이다.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성별(남 587명(49.0%), 여 610명(51.0%)), 연령(16세 90명(7.5%), 17세 1,064명(88.9%), 18세 39명(3.3%), 19세 3명(0.3%), 20세 1명(0.1%), 거주지역(서울 117명(9.8%), 경인지역 302명(25.2%), 충청/강원지역 240명(20.1%), 경상지역 280명(23.4%), 전라/제주지역 258명(21.6%)), 부모 중 외국인 여부(부 37명(3.1%), 모 1,154명(96.4%)), 두 분 모두 외국인 4명(0.3%), 두 분 모두 한국인 2명(0.2%)이었다.

### 2.2 측정도구

본 연구에서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실시한 ‘다문화청소년패널조사’ 8차년도 조사(2018)에서 사용한 문항을 그대로 사용하였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2.2.1 성취동기

성취동기를 측정하기 위하여 Yu & Yang[23]에서 발췌 및 수정·보완한 양계민 외[22]가 사용한 문항을 사용하였다. 구체적인 문항은 “나는 내가 세운 학습목표를 이루기 위해 노력한다”, “나는 내가 좋아하는 일을 잘하기 위해 끝까지 노력한다”, “나는 내가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일에 대해 최선을 다한다”, “나는 나 스스로 학습 목표를 결정한다”, “나는 스스로 정한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것을 좋아한다”, “내가 관심이 있는 일을 시도하는 것을 즐긴다”, “나는 내 자신이 만족할 때까지 노력한다”, “나는 가족이나 주위 사람의 기대보다는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을 추진한다”이며, 4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였다. 척도의 점수가 높을수록 성취동기가 높다는 것을 뜻하며, 본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값은 .887로 나타나 비교적 높은 신뢰도를 나타냈다.

### 2.2.2 진로결정성

진로결정성을 측정하기 위하여 이기학과 한종철[24] 중 일부를 사용한 양계민 외[22]의 문항을 사용하였다. 구체적인 문항은 “졸업 후 진로에 대해 생각해본 적이 없어 무엇을 할지 막막하다”, “나의 진로에 대해 확실한 결정을 해놓았다”, “나중에 바뀔지 모르겠지만 일단 하고 싶은 일을 결정해놓았다”, “어떤 진로를 선택해야 할지 결정하기가 어렵다”이다. 이 중 “졸업 후 진로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없어 무엇을 할지 막막하다”, “어떤 진로를 선택해야 할지 결정하기가 어렵다”는 역채점하여 사용하였으며, 4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였다. 척도의 점수가 높을수록 진로결정성이 높다는 것을 뜻하며, 본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값은 .833으로 나타나 비교적 높은 신뢰도를 나타냈다.

### 2.2.3 사회적 위축

사회적 위축을 측정하기 위하여 김선희와 김경연[25]을 수정·보완한 이경상 외[26]의 문항을 사용하였다. 구체적인 문항은 “나는 주위에 사람이 많으면 어색하다”, “나는 부끄러움을 많이 탄다”,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내 의견을 분명하게 말하기 어렵다”, “나는 수줍어 한다”, “나는 사람들 앞에 나서기를 싫어한다”이며, 4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였다. 척도의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적 위축이 높다는 것을 뜻하며, 본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값은 .908로 나타나 비교적 높은 신뢰도를 나타냈다.

### 2.2.4 우울

우울을 측정하기 위하여 이경상 외[26]가 사용한 문항을 사용하였다. 구체적인 문항은 “나는 기운이 별로 없다”, “나는 불행하다고 생각하거나 슬퍼하고 우울해한다”, “나는 걱정이 많다”, “나는 죽고 싶은 생각이 든다”, “나는 울기를 잘한다”, “나는 어떤 일이 잘못되었을 때 나 때문이라는 생각을 자주 한다”, “나는 외롭다”, “나는 모든 일에 관심과 흥미가 없다”, “나는 장애가 희망적이지 않은 것 같다”, “나는 모든 일이 힘들다”이며, 4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였다. 척도의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이 높다는 것을 뜻하며, 본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값은 .910으로 나타나 비교적 높은 신뢰도를 나타냈다.

## 2.3 자료분석방법

본 연구의 연구모형을 검증하기 위해 연구대상 자료를 SPSS 27.0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각 변수별로 그 특성을 확인하기 위해 빈도분석과 기술통계분석을 하여 그 결과를 확인하였다. 또한 측정도구에 대해 신뢰도 검증을 하기 위해 Cronbach's alpha 값을 확인하였고, 주요 변수들의 상관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상관분석을 하였다. 그 다음으로 연구문제인 다문화 청소년의 성취동기와 진로결정성의 관계에서 사회적 위축과 우울의 순차적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SPSS 27.0에서 Hayes[27]의 PROCESS macro 3.5.3을 사용하였다. PROCESS macro는 회귀분석을 통해서도 복수의 매개변수를 투입한 평행다중매개모형을 검증할 수 있으며, 부트스트래핑을 활용한 검증이 가능하도록 제작되었다. 또한 매개효과를 변수마다 분해하므로 개별 변수의 개별적인 매개효과를 동시에 검증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PROCESS macro의 model 6을 사용하여 분석하였으며, 순차적 매개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Hayes[27]가 제시하였던 절차를 확인하고, 이에 따라 분석하였다. 이어서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 방법을 활용하여 순차적 매개효과 모형에서 확인한 간접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한지를 확인하였다.

## 3. 연구결과

### 3.1 주요변수의 기술통계

주요 변수들의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 기술통계 분석을 하였으며 그 결과는 Table 1과 같다. 왜도와 첨도의 점수를 살펴봄으로써 정규분포성을 확인하였는데, 본 연구의 측정변수의 왜도의 절대값이 3을 넘지 않고, 첨도의 절대값이 10을 넘지 않아 각각 정규분포성의 조건을 충족시킨 것을 확인하였다[28]. 한편 주요 변수들 간의 관계를 검증하기 위하여 Pearson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Table 2에서와 같이 모든 변수는 서로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1. Descriptive statistics of variables**

Variables	N	Mean	S.D	Skewness	Kurtosis
Achievement Motivation	1197	24.29	3.69	-.27(.07)	1.77(.14)
Career Decision	1197	10.86	2.70	.03(.07)	-.33(.14)
Social Withdrawal	1197	11.99	3.66	-.62(.07)	-.45(.14)
Depression	1197	17.85	5.67	.29(.07)	-.35(.14)

\*\*\* p<.001

**Table 2. Correlation Analysis**

Variables	1	2	3	4
1. Achievement Motivation	1			
2. Career Decision	.44***	1		
3. Social Withdrawal	-.27***	-.21***	1	
4. Depression	-.33***	-.26***	.49***	1

\*\*\* p<.001

**3.2 성취동기와 진로결정성의 관계에서 사회적 위축과 우울의 순차적 매개효과**

다문화 청소년의 성취동기와 진로결정성의 관계를 사회적 위축과 우울이 순차적으로 매개하는 연구모형을 설정하였고, 각각의 경로별로 통계적으로 유의한지를 확인하기 위해 4단계 회귀분석을 하였다. 분석결과는 Table 3과 같다. 구체적인 분석절차로 먼저 1단계에서는 성취동기가 진로결정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고, 2단계에서는 성취동기가 사회적 위축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으며, 3단계에서는 사회적 위축과 우울이 동시에 진로결정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최종적으로 4단계에서는 성취동기, 사회적 위축, 우울이 동시에 진로결정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이 때, 4단계에서 확인되는 성취동기가 진로결정성에 미치는 효과의 수준( $\beta$ )이 1단계와 비교하여 감소되었을 경우에 매개효과가 있다고 판단한다. 이 때 4단계에 성취동기가 진로결정성에 미치는 영향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을 경우에는 사회적 위축과 우울이 부분적으로 매개한다고 보

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완전히 매개한다고 본다.

**Table 3. Sequential mediating effect of social withdrawal and depression in the relationship between achievement motivation and career decision**

step	outcome variables	predictor variables	B	S.E	$\beta$	t
1	Career Decision	Achievement Motivation	.32	.02	.43	16.68***
		F=278.19, p<.001, R-squared=.1888				
2	Social Withdrawal	Achievement Motivation	-.28	.03	-.27	-9.69***
		F=93.87, p<.001, R-squared=.0728				
3	Depression	Achievement Motivation	-.33	.04	-.22	-8.50***
		Social Withdrawal	.66	.04	.43	16.80***
		F=232.66, p<.001, R-squared=.2804				
4	Career Decision	Achievement Motivation	.28	.02	.39	13.96***
		Social Withdrawal	-.04	.02	-.05	-1.82
		Depression	-.05	.01	-.10	-.34***
		F=103.00, p<.001, R-squared=.2057				

\*\*\* p<.001

우선 1단계에서 성취동기의 회귀모형을 살펴본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F=278.19, p<.001). 그리고 각각의 회귀계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한지를 확인한 결과, 성취동기의 진로결정성에 대한 영향은 정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beta$ =.43, t=16.68, p<.001). 이로써 성취동기가 높을수록 진로결정성이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2단계에서 성취동기가 사회적 위축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는 회귀모형을 살펴본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F=93.87, p<.001). 그리고 각각의 회귀계수를 살펴본 결과, 성취동기의 사회적 위축에 대한 영향은 정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beta$ =-.27, t=-9.69, p<.001). 이로써 성취동기가 높을수록 사회적 위축이 낮은 것을 알 수 있었다.

3단계에서 성취동기와 사회적 위축이 우울에 대해 영향을 미친다고 보는 회귀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F=232.66, p<.001). 각각의 회귀계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한지를 살펴본 결과, 사회적 위축의 우울에 대한 영향이 정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고( $\beta$ =.43, t=16.80, p<.001), 성취동기의 우울에 대한 영향이 부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beta$ =-.22, t=-8.50, p<.001). 이로써 사회적 위축이 높을수록 우울이 높은 것을 알 수 있었으며, 성취동기가 높을수록 우울이 낮은 것을 알 수 있었다.

4단계에서 성취동기, 사회적 위축, 우울이 진로결정성에 대해 영향을 미친다고 보는 회귀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F=103.00, p<.001$ ). 각각의 회귀계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한지를 살펴본 결과, 진로결정성에 대한 성취동기( $\beta=.39, t=13.96, p<.001$ ), 우울( $\beta=-.10, t=-.34, p<.001$ )의 영향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사회적 위축( $\beta=-.05, t=-1.82, p=.08$ )의 영향은 유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Shrout & Bolger[29]가 제안한 부트스트래핑 방법을 사용하여 회귀모형에서 확인할 수 있었던 세 가지의 간접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한지를 살펴보았으며, 그 결과는 Table 4와 같다. 부트스트래핑 방법은수가 같은 샘플을 반복하여 추출한 다음 매개효과 모형에서 확인할 수 있는 각각의 간접효과와 표준오차를 재추정하는 것이다. 이는 95% 신뢰구간(Biased-corrected CI)을 제시하고 그 신뢰구간 내에 0이 있지 않으면 그 간접효과에 대해 통계적으로 유의하다고 판단한다. 먼저 성취동기(AM)가 사회적 위축(SW)을 통해 진로결정성(CD)에 영향을 미치는 간접효과는 신뢰구간 내에 0이 있으므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B=.0107, 95\% \text{ Bias-corrected CI}=-.0015\sim.0240$ ). 그 다음으로 성취동기(AM)가 우울(D)을 통해 진로결정성(CD)에 영향을 미치는 간접효과는 신뢰구간 내에 0이 있지 않으므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B=.0165, 95\% \text{ Bias-corrected CI}=.0066\sim.0276$ ). 이를 볼 때 성취동기가 우울을 통해 진로결정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며, 성취동기가 높을수록 우울이 낮아지고 진로결정성이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성취동기(AM)가 사회적 위축(SW)과 우울(D)을 순차적으로 거쳐 진로결정성에 영향을 미치는 간접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B=.0088, 95\% \text{ Bias-corrected CI}=.0034\sim.0417$ ). 이를 볼 때 성취동기가 높을수록 사회적 위축이 낮아지게 되고, 우울이 낮아지며, 진로결정성이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성취동기가 사회적 위축을 통해 진로결정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나, 성취동기가 사회적 위축과 우울을 순차적으로 거쳐 진로결정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볼 때, 성취동기와 진로결정성의 관계에서 사회적 위축과 우울이 이들 관계를 완전매개함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성취동기가 사회적 위축을 거치고 우울을 거쳐서 진로결정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Table 4. Bootstrapping results verifying the significance of sequential mediating effects of social withdrawal and depression

	Bootstrap estimate		95% bias-corrected CI	
	B	S.E	Boot LLCI	Boot ULCI
AM→SW→CD	.0107	.0066	-.0015	.0240
AM→D→CD	.0165	.0053	.0066	.0276
AM→SW→D→CD	.0088	.0029	.0034	.0417

#### 4.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 청소년의 성취동기와 진로결정성의 관계에서 사회적 위축과 우울의 순차적 매개효과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를 기초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다문화 청소년의 성취동기는 진로결정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박동진과 김송미[12]와 전해숙, 김진영, 전종설[13]에서의 결과와 일치한다. 다문화 청소년의 진로결정성은 성취동기에 영향을 받아 변화되었으며, 성취동기는 다문화 청소년의 진로결정성을 예측하는 중요한 변인임이 확인되었다.

둘째, 다문화 청소년의 성취동기와 진로결정성의 관계를 사회적 위축이 매개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성취동기와 사회적 위축 간의 부적 상관관계가 있다는 이래혁, 채황석, 오채민[15]와 박동진과 김송미[16]에서의 결과와 일치하지 않으며, 또한 사회적 위축이 높을수록 진로결정성이 낮다는 김효선[17]과 정나은과 김원영[18]의 연구결과와도 일치하지 않는다. 본 연구결과를 통해 성취동기와 진로결정성의 관계에 있어서 사회적 위축이 이들 관계를 매개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성취동기와 진로결정성의 관계에서 사회적 위축뿐 아니라 우울을 포함하여 그 영향을 살펴보는 것이므로, 사회적 위축의 매개효과에 있어서 우울의 영향력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사회적 위축의 매개효과가 유의하지 않다고 단정하거나 선행연구 결과와의 직접적으로 비교하는 것은 다소 제한된다고 할 수 있다.

셋째, 다문화 청소년의 성취동기와 진로결정성의 관계를 우울이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취동기와 우울 간의 부적 상관관계가 있다는 박동진과 김송미[16]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며, 다문화 청소년이 우울할수록 진로결정에 어려움을 경험한다는 전해숙, 김지영, 전종설

[13]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본 연구결과를 통해 성취동기, 진로결정성의 관계에 있어서 우울이 이들 관계를 매개한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특히 우울은 부분매개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성취동기가 진로결정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성취동기는 우울을 거쳐서도 진로결정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성취동기와 진로결정성 간의 사회적 위축의 매개효과가 밝혀진 바가 없었으나, 본 연구결과를 통해 우울의 매개효과가 밝혀졌다. 이에 진로결정성에 있어서 우울의 영향력에 대해서 고려할 필요가 있다.

넷째, 다문화 청소년의 성취동기와 진로결정성의 관계를 사회적 위축과 우울이 순차적으로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문화 청소년의 성취동기가 높을수록 진로결정성이 높아짐을 알 수 있었으며, 이 영향력이 지속되는 가운데, 성취동기는 사회적 위축과 우울을 순차적으로 거쳐 진로결정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성취동기가 사회적 위축을 통해 진로결정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성취동기가 우울을 통해서도 진로결정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성취동기가 사회적 위축과 우울을 순차적으로 거쳐 진로결정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살펴보면, 이는 성취동기가 사회적 위축을 거칠 때에는 진로결정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성취동기가 사회적 위축을 통해 우울을 거쳐 영향을 미칠 때에는 진로결정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었다. 홍나미와 박현정[20]과 조성희와 박소영[21]에서 다문화 청소년의 사회적 위축이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러한 관계가 성취동기와 진로결정성 간의 관계에서도 그대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살펴볼 때, 성취동기가 진로결정성에 대해 미치는 영향은 물론이고, 사회적 위축과 우울의 영향을 고려하여 이에 대한 적절한 개입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다문화 청소년의 진로결정을 지원하기 위한 제언을 다음과 같이 하고자 한다.

첫째, 다문화 청소년의 성취동기를 향상시키기 위한 다양한 상담 프로그램 제공이 필요하다. 본 연구결과를 통해 다문화 청소년의 성취동기가 높을수록 진로결정성이 높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를 볼 때 다문화 청소년의 진로결정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성취동기를 향상시키는 것이 주효하다고 할 수 있다. 다문화 청소년의 성취동기를 향상시키는 것은 다문화 청소년이 이중문화

속에서 경험하는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감소시키고[15], 이중문화를 수용성을 높이는 것 등의 접근이 효과적이라고 밝혀진 바 있다[30]. 이를 볼 때 다문화 청소년들의 심리정서적 적응을 지원하기 위한 개인 및 집단상담의 지속적이고 충분한 제공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청소년 관련 기관들에서 다문화 청소년들이 지속적으로 성취경험을 할 수 있도록 활동프로그램을 제공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다문화 청소년의 사회적 위축과 우울을 감소시키기 위한 실질적인 심리상담 지원이 필요하다. 본 연구결과를 통해 다문화 청소년의 진로결정성에 있어 사회적 위축과 우울이 중요한 영향요인임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결과를 통해서 사회적 위축과 우울이 진로결정성을 낮추는 유의미한 위험요인인 것이 밝혀진 가운데, 다문화 청소년의 진로결정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그들이 일상에서 경험하는 사회적 위축과 우울을 감소시키는 접근이 필요하다. 사회적 위축과 우울 등 부정적인 심리를 다루는 전문적인 개인상담, 집단상담을 비롯하여 체계적인 사례관리 등을 통해서 다문화 청소년이 사회적 위축과 우울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그들의 진로 관련 문제를 해결하는 데 매우 효과적일 것이다.

본 연구는 다문화 청소년의 성취동기와 진로결정성의 관계에서 사회적 위축과 우울의 순차적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러나 본 연구의 의의가 있음에도 다음과 같은 한계도 갖고 있다. 첫째, 본 연구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제공하는 '다문화청소년패널조사'에 참여한 다문화 청소년이 응답한 데이터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이 데이터는 개인적으로 접근하기 어려운 대규모의 다문화 청소년에 대한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는 점에서 다문화 청소년의 특성을 살펴보는 데 매우 유용하나, 표집된 대상 대다수가 국제결혼가정의 자녀인 다문화 청소년들이라는 한계가 있다. 국제결혼가정의 자녀가 다문화 청소년 인구 분포에서 다수를 차지한다고 해도, 다문화 청소년의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살펴보기에는 다소 제한된다. 후속연구에서는 국제결혼가정의 자녀인 청소년, 외국인 근로자의 자녀인 청소년, 중도입국 청소년 등등 다문화 청소년의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고려하여 이들 배경에 따른 차이를 살펴본다면 본 연구의 한계를 다소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둘째, 본 연구에서 살펴본 결과는 횡단적으로 살펴보았기에 청소년의 급격하게 이루어지는 발달에 따른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다. 이에 따라 후속 연구에서는 본 연구에서 살펴본 다문화 청소년의 성취동기와 진로결정성의 관계에서의 사회적 위축과 우울의 순차적 매개효과를 종단적으로 살펴보아 이들 변인의 변화 궤적을 밝힌다면, 청소년의 발달에 따른 특성을 보다 반영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 REFERENCES

- [1] Y. H. Sung. (2020). The relationship between acculturative stress and career decisiveness for multicultural youth in Korea: the mediational effect of career barriers and the moderated mediation of self-esteem, *The Journal of Career Education Research*, 33(1), 43-64.  
DOI : 10.32341/JCER.2020.03.33.1.43
- [2] H. K. Moom. (2016). *The Effects of Middle School Students' Self-Efficacy and Self-Esttem on Career Preparation Behavior*, Master's Thesis, Donga University. Busan.
- [3] D. E. Super. (1980). A Life-span, Life-space Approach to Career Development,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16, 282-298.  
DOI : 10.1016/0001-8791(80)90056-1
- [4] J. Y. Kim & Y. H. Lee. (2019), The Trend and Issues of Research on Career Development of Multicultural Youth: Focusing on Journal Papers (2009-2019.6), *The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19(19), 1205-1230.  
DOI : 10.22251/jlcci.2019.19.19.1205
- [5] D. Tao, R. Zhang, E., Lou & R. N. Lalonde. (2018). The cultural shaping of career aspirations: Acculturation and Chinese biculturals' career identity styles. *Canadian Journal of Behavioural Science/Revue canadienne des sciences du comportement*, 50(1), 29-41.
- [6]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2021). *The Korean Law Information Center*. (Online). <http://www.law.go.kr>
- [7] S. S. Cho & S. J. Ju. (2014). A Study on the Effect of Career Exploration Mentoring Program of Ecological Systemic Perspective on the Career Maturity and School-life Maladjustment for the Children of Multi-cultural family, *Journal of School Social Work*, 27, 51-82.
- [8] K. L. Park. (2015). A Study on the Self-Identity of the Youth in Multicultural Families in Korea : Focused on Gwangju · Jeollanam-do Area, *The Journal of Peace Studies*, 16(5), 171-191.  
DOI : 10.14363/kaps.2015.16.5.171
- [9] C. H. Lee. (2021). The Dual Mediating Effect of Achievement Motivation and Social Withdrawal in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al Support and Career Decision in Multicultural Adolescents, *Journal of Social Science*, 32(2), 271-289.  
DOI: 10.16881/jss.2021.04.32.2.271
- [10] J. S. Hyde & K. C. Kling. (2001). Women, Motivation, and Achievement, *Psychology of Women Quarterly*, 25(4), 364-378.  
DOI : 10.1111/1471-6402.00035
- [11] V. V. Busato, F. J. Prins, P. J. Elshout & C. Hamaker. (2000). Intellectualability, learning style, personality, psychology students in higher education,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29, 1057-1068.  
DOI :10.1016/S0191-8869(99)00253-6
- [12] D. J. Park & S. M. Kim. (2020). Mediating Effect of Life Satisfaction on the Effects of Achievement Motivation on Career Decision of Multicultural Adolescents, *Institute for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21(3), 267-289.  
DOI : 10.15818/ihs.2020.21.3.267
- [13] H. S. Jeon., J. Y. Kim & J. S. Chun. (2019). Factors Associated with Career Decision Making among Adolescents in Multicultural Families,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26(10), 259-290.  
DOI : 10.21509/KJYS.2019.10.26.10.259
- [14] K. H. Rubin, R. J. Coplan & J. C. Bowker. (2009). Social Withdrawal in Childhood. *Annual Review of Psychology*, 60, 141-171.  
DOI : 10.1146/annurev.psych.60.110707.163642
- [15] R. H. Lee, S. C. Hwang & C. M. Oh. (2020). The Dual Mediating Effect of Depression and Social Withdrawal in the Association between Acculturation Stress and Achievement Motivation among Multicultural Adolescents, *Journal of School Social Work*, 49, 1-24.  
DOI : 10.20993/jSSW.49.1
- [16] D. J. Park & S. M. Kim. (2021). The Effects of Social Withdrawal and Depression on Achievement Motivation of Multicultural Adolescents : Mediated Moderation Effect of Self-Esteem, *Health & Welfare*, 23(1), 29-53.  
DOI : 10.23948/kshw.2021.03.23.1.29
- [17] H. S. Kim. (2020). *A study on the effects of multicultural adolescents' career decision-making according to their perception of the mother's Korean language competency : focusing on the mediation effect of self-esteem, social withdrawal, career barriers*,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Seoul, Seoul.

[18] N. E. Jung & W. Y. Kim. (2020), Longitudinal Study of Multi-cultural Adolescents' Changes in Career Determination Using Latent Growth Modeling-Focusing on Mother's Acculturative Stress and Adolescents' Social Atrophy, *Journal of Education & Culture*, 26(5), 493-517.  
DOI : 10.24159/joec.2020.26.5.493

[19] B. S. Park, S. W. Bae, K. J. Park, M. K. Seo & H. J. Kim. (2017). A Structural Analysis of the Relationship between Peer Attachment, Social Withdrawal, Depression, and School Adjustment, *Health and Social Welfare Review*, 37(2), 72-101.  
DOI : 10.15709/hswr.2017.37.2.72

[20] N. M. Hong & H. J. Park. (2017). The Mediating Effects of Social Withdrawal and Depression in the Influence of Parents' Neglect on Multicultural Adolescents' School Adjustment, *Journal of Future Social Work Research*, 8(2), 125-151.

[21] S. H. Cho & S. Y. Park. (2020), Mediating Effect of Social Withdrawal on the Adolescent's Relationship between Perceived Neighborhood Characteristics and Depression in Multicultural Families, *Youth Facilities and Environment*, 18(2), 81-92.

[22] K. M. Yang, J. K. Hwang, B. R. Youn & Y. M. Jeong. (2018). *Longitudinal Study on Multicultural Adolescents : General Report (Research Report 18-R14)*. Sejong: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23] A. B. Yu & K. S. Yang. (1994). *The Nature of Achievement Motivation in Collectivist Societies*, In: U. Kim, H. C. Triandis, C. Kagitcibasi, S. C. Choi and G. Yoon Eds., *Individualism and Collectivism: Theory, Methods, and Applications*, Sage Publications, London, 239-250.

[24] K. H. Lee & J. C. Han. (1997). Tool for Validation of Inventory on Career Attitude, *The Journal of Career Educational Research*, 8, 219-255.

[25] S. H. Kim & K. Y. Kim. (1999). The Causal Relationship of Children's Behavior Problem and the Related Variables, *Journal of Korean Home Management Association*, 17(1), 155-166.

[26] K. S. Lee, H. J. Baek, J. W. Lee & J. Y. Kim. (2011). *The 2011 Annual Report of the Korean Children and Youth Panel Survey*, Seoul :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27] A. F. Hayes. (2013). *Introduction to Mediation, Moderation, and Conditional Process Analysis: A Regression-Based Approach*, NY: The Guilford Press.

[28] R. B. Kline. (2015). *Principles and practice of*

*structural equation modeling*(4th Ed.), NY: The Guilford Press.

[29] P. E. Shrout & N. Bolger. (2002). Mediation in experimental and nonexperimental studies: new procedure and recommendations, *Psychological methods*, 7(4), 422-445.  
DOI : 10.1037/1082-989X.7.4.422

[30] H. H. Lee & H. K. Song. (2020). The Effect of Multicultural Youth's Biticultural Acceptance on the Change of Achievement Motivation : Focusing Latent Growth Modeling Analysis, *Proceeding of Korean Society of Computer Information Summer Conference*, 28(2), 181-182

박 동 진(Dong-Jin Park)

[정회원]



- 2020년 3월 ~ 현재 : 한양대학교 사회복지과 조교수
- 관심분야 : 사회복지실천, 청소년복지
- E-Mail : wookana@hanmail.net

김 송 미(Song-Mi Kim)

[정회원]



- 2020년 3월 : 도시사(同志社)대학 사회복지학과(사회복지학박사)
- 2021년 7월 ~ 현재 : 명지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 전임연구원
- 관심분야 : 사회복지실천, 다문화사회복지
- E-Mail : matumism0730@gmail.com